

#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힘이 되는 맞춤형 급여 확대

### 진안군, 사업 본격 추진 앞서 주요 내용 공유·주민과 소통 나서

진안군은 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조성될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8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안군에서 처음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고, 지난해 말 수립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군 도시계획팀장의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용역사인 (주)서영엔지니어링의 세부 개발계획 발표와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사업 개요와 개발 여건 분석, 대상지 현황, 개발계획(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안을 근산리 선거관리위원회 북측에서 목골 방면 일원 7만1,867㎡ 부지에 주거시설과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368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총 611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임대 100세대와 분양 400세대의 공동주택용지, 21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되며, 준주거시설(상가) 용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



진안군은 8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설도 함께 확충될 예정이다.

군은 2023년 12월 전북개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0월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11월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향후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 구역 포함 여부와 토지 보상 절차, 향후 주택 분양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은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오는 1월 19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진행한다.

추가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준성 군수는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안군의 부족한 주거 용지를 확보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쾌적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해 미래 진안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무주 한우' 전국 최고 수준 품질 입증

### 2025년 한우 도축 성적 분석 결과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 62.4% '도내 1위'

'무주 한우'가 2025년 한우 도축 성적 분석 결과 1+ 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 62.4%로,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 54.5%) 자료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관정 통계)을 입증했다. 축종별로 보면 '거세우' 81.3%, '암소' 43.1%가 1+ 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무주군의 △체계적인 한우 개량 정책과 △농가 중심의 사양관리 기술 향상이 주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무주군은 그동안 한우 등록 사업, 유전체분석, 수정란 이식 등 과학적 개량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농가 맞춤형 기술교육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등 고급육 생산 역량을 강화해 왔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민관이 함께 기울인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무주 한우가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도 기여할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가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무주 한우의 가치가 재조명됐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품질 한우 개량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 지원을 통해 우량 암소와 초우량 암소 확대를 통해 무주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208농가에서 한우 7,95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1,624두 정도가 식용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 무주군, 84억원 투입해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무주군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사업' 추진에 8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180가구로 사업 홍보와 더불어 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 원으로, 그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별 선정 기준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07만 원, 의료급여 259만 원, 주거급여 311만 원, 교육 급여 324만 원 이하로 완화돼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담비 부과 폐지 등 다양한 조건이 개선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 장수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신청·접수

장수군은 다음달 13일까지 '2026년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모임체로 각 연구회는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회원 간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연구회는 농업인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품목별 맞춤형 기술 보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에는 사과, 토마토 등 18개 품목 41개 연구회, 1,395명의 회원이 등록해 활동했으며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의 품목별 기술교육과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20명 이상의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하면 된다.

연구회로 등록이 확정되면 연구모임과 관련된 작목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 우수농가 현장 교육 등 연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인 간 협업과 네트워크가 강화돼 영농 정보 공유와 공동 문제 해결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대상 작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발생 범위가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사후 방제보다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주요 병해충을 선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약제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약제는 과수 화상병, 벼 총지소

독처리제, 고추 탄저병 등 9종이며,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가의 방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공약이행평가 군민 배심원단 전체회의 개최

진안군은 8일 산악초전시관 홍삼실에서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군수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참여형 평가를 통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민배심원단은 경제육성, 문화관광, 복지생활, 인재양성, 소통행정 등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였으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약이행률 90%를 달성하여 진안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군민배심원단은 지난 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진행상황을 청취한 후 각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진도를 평가하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변경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군 계북면, 새해맞이 마을 순회 간담회 추진

장수군 계북면이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 친화적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새해맞이 마을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명연호 새해를 맞아 군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계북면장으로 취임 발령된 유인선 면장과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의견 등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계북면은 7일 압곡마을을 시작으로 9일까지 17개 대표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면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을별 현안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